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산 갈비가 수입될 경우 유통단계에서 둔갑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뼈가 붙어 있으면 국산 한우갈비로의 둔갑이 쉬워지고, 이에 타격을 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암소개량 체계 확립을 통해 고급육 생산기반 확대를...



남 호 경
전국한우협회장

4월 한미 FTA 체결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실제로 재개되면서 한우농가의 불안감이 산지 가격하락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쇠고기 시장을 먼저 내주고 타 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반면 미국 정부와 의회는 미 육우산업을 대표하고 나서서 쇠고기 수출을 위해 한미 FTA를 압박하는 모습을 볼 때 한우농가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어 5월 OIE 총회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을 내리자, 정부는 수입위험평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한 지 나흘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미국 쇠고기에선 갈비뼈가 통째로 발견되었다.

미국은 OIE 판정결과가 나자마자 뼈를 포함한 갈비를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갈비를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내 수요가 적은 갈비를 우리나라에 팔 수 있는 기회를 OIE가 준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산 갈비가 수입될 경우 유통단계에서 둔갑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뼈가 붙어 있으면 국산 한우갈비로의 둔갑이 쉬워지고, 이에 타격을 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OIE 결과는 권고사항일 뿐 규제는 아니다. 8단계 위험평가 이전에 미국의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수입위생조건은 국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식품 유통문제에 함께 고민해서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하는 것이 수순이다.

민건강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로 차근차근 챙겨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은 먼 것 같다.

송아지생산안정제 현실화, 유통투명화 대책 절실

한미 FTA 체결이 되자마자 생산자들은 한 목소리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송아지 가격이라도 안정시켜야 한우산업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55만원으로 기준가격이 상향되었고, 이와 함께 생산자들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유통투명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농림부장관 간담회에서도, 4월 27일 평창 대통령 한우농가 간담회에서도 쇠고기 유통문제를 지적했다.

우리의 이 답답한 심정을 대통령도 알았는지, 한우고기 유통시장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이에 동의해 “대통령이 유통 개선문제 만큼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유통 현실은 아닌 듯 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식품 유통문제에 함께 고민해서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러나 아직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축산물의 원산지 표기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우리나라 쇠고기 관련 시스템 정비해야

우리나라는 광우병 청정국이라고는 하나 OIE에 등급신청 조차



제도적 기틀만 잡아준다면 한우농가가 노력해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껏 진행되어왔던 수소 위주의 개량 정책에서 더 발전해 암소개량으로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런데 2등급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미국과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대해 무슨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쇠고기와 관련한 전체 시스템을 정립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광우병 우려가 큰 미국산 쇠고기를 뼈까지 포함해 수입할 기로에 서서 한우산업의 존폐위기는 물론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미 FTA 대책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우산업을 값어치는 현재 유통환경 개선과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한우가 한우로 팔릴 수 있도록 DNA 기반의 생산이력제를 구축해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DNA 정보를 기초로 한우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역·수급·안전성 등 한우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암소개량 체계화 통해 고급육 생산기반 확대

그렇게 제도적 기틀만 잡아준다면 한우농가가 노력해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껏 진행되어왔던 수소 위주의 개량 정책에서 더 발전해 암소개량으로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우가 경쟁력을 갖춰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명품이 될 것이다.